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김숙남** · 최순옥* · 이정지* · 신경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 교양부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VI.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제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부여된 일이며 인간에게서 죽음은 삶의 필연적이고 모두가 겪어야 할 사건으로(Nouwens, 1998)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이라는 몫을 똑 같이 부여받았으며 삶과 죽음의 필연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죽음이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오늘날 의학적 진보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인간은 누구나 늙거나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삶과 죽음의 분리될 수 없는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기피하는 이유는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최숙향, 1995).

과거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던 전통적인 가족 형태 속에서 죽음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아픈 사람의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러한 일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자연스런 죽음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산업발달로 인한 도시화로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이 아닌 병원에서 돌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교신저자: 김숙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4-1번지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우: 609-757)

전화번호: 051-510-0727, E-mail: snkim@cup.ac.kr

분리되어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게 되면서 죽음은 점차 가족들 밖으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생의 마지막 과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다루기에 어려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Ferrel과 Coyle, 2001).

현대사회에서 죽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사건사고나 자연재앙 등으로 인한 집단사망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죽음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사이기 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의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죽음은 의학의 실패로 간주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전념하기에도 여유가 없다. 그래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죽음을 떠올리거나 죽음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은 곧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만큼 죽음의 존엄성이 보존되어야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망학으로 유명한 부위훈(2002)은 인간이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고 죽음은 삶의 마지막 성장이라고 했다. 죽음은 두려운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죽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보다 의연(毅然)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안춘옥, 2001).

죽음교육과 죽음학에 대한 언급은 Feifel(1959)의 'The meaning of death'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시작되었으며, Kubler-Ross(1969)의 'On death

and dying'의 발표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인간답게 죽어갈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태도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대두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삶과 연결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죽음준비를 위한 교육적 논의가 삶의 질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다(이영화, 1998).

죽음에 대한 불변의 명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다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죽음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로 제공될 수 있다고 본다. 죽음은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교육은 삶의 가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의 의미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생의 의미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Frankl, 1963)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에 관한 총체적인 가치에 관한 질문이다. 이러한 생의 의미는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실현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Frankl, 1969; 히데코, 2002) 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준비 교육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청년기에 속하며 청년기란 발달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때이므로 이 시기에 죽음

교육을 받는 것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새롭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의 의미를 재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죽음교육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종교단체와 대학에서 강연회 형식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남현숙, 1999). 미국, 캐나다, 유럽과 일본 등 국외에서는 2, 30년 전부터 죽음교육에 대해 다학제간 연구가 시작되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활발하게 죽음교육이 지속되고 있다(테켄, 2002).

죽음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 학생들의 죽음 및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연구(강광순, 2000), 죽음준비 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최숙향, 1995), 죽음준비 교육을 위한 모형개발(이영화, 1998) 및 이론적 고찰(우정길, 1997)에 관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제로 죽음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2. 연구기설

- 1) 죽음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죽음에 대한 부정적 태도점수가 낮을 것이다.
- 2) 죽음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생의 의미 점수가 높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일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 설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죽음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목적과 참여에 동의하는 자를 연구자가 편의추출 하였다.

대조군 (2004. 1. 26 - 2004. 1. 31)		실험군 (2004. 2. 9 - 2004. 2. 13)		
C1	C2	E1	X	E2

그림 1. 연구 설계 모형

C1, E1 :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 생의 의미
 X(실험처치) : 죽음교육 프로그램
 C2, E2 : 죽음에 대한 태도, 생의 의미

자료수집 기간은 대조군이 2004년 1월 26일에서 1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실험군은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에서 대조군 14명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1주 간격을 두고 일반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 수준을 조사하였고, 실험군은 죽음교육 첫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사후조사는 5일간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시하였다. 죽음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모두 17명이었고, 중도에 3명이 탈락하여 14명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탈락한 대상자는 물리치료학과 2학년 2명과 사회복지학과 2학년 1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두 집단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전공학과와 일반적 특성이 동질한 대상으로 짝짓기 선정하였다.

표 1. 죽음교육 프로그램

일/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1일	죽음의 의미			또 다른 죽음 : 고통의 의미		
	의학적, 심리학적 의미		철학적, 신학적 의미			
2일	현대사회와 죽음			토론		
	자살과 안락사		뇌사와 장기이식			
3일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 : 호스피스 운동의 역사. 임종환자 돌보기			상실과 슬픔다루기 : 상실과 슬픔의 단계		
4일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체험소개		상실경험 나누기 : 소집단 토의			
5일	바람직한 삶과 죽음		비디오 감상 및 토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바람직한 삶과 죽음이란?					

3. 죽음교육

실험처치인 죽음교육은 호스피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3인과 심리학 교수 1인이 30시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본 대학에서 5일간 1일 6시간씩 강의와 토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죽음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표 1, 2와 같다.

4. 연구 도구

1) 죽음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간접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종말을 지각하고 죽음에 대비하여 죽음을 받아들

표 2.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주요 주제	구체적 내용
죽음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음의 의학적, 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강의 · 죽음의 철학적, 신학적 의미에 대한 강의 · 고통의 의미 - 고통의 이론적 내용과 실생활 속에서 고통 다루기 내용 강의
현대사회와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과 안락사의 이론적 내용 강의 ·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이론적 내용강의 · '안락사인가?, 살인인가?' 비디오 감상 후 안락사, 뇌사, 장기 이식에 관한 토론실시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인이 죽음을 맞는 방식과 호스피스 운동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철학 강의 ·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와 돌보는 이에 대한 강의 · 호스피스 모델과 말기환자의 총체적 고통에 대한 강의 · 말기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강의
상실과 슬픔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픔과 상실에 대한 이론적 내용 강의 · 일상생활에서 상실경험과 대처방법에 대한 토의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체험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의 경험과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통해 임종환자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점을 강의
바람직한 삶과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의 의미 발견과 실현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삶과 죽음을 향한 여정을 논의
비디오 감상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감상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강의를 통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를 개별발표

이는 것을 의미한다(남현숙, 1999).

연구도구는 Collett와 Lester(1969)가 제작한 FODS(Fear of Death Scale)를 남현숙(1999)이 한국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25문항의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죽음 회피'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 범위는 최소25점에서 최대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 회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남현숙(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0이었다.

2) 생의 의미

생의 의미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Frankl(1963)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과 삶의 유한성

(한계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과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생의 의미 측정도구는 자기 자신과 삶의 유한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수용하는가,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실현은 어느 정도인가,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기 위해 이정지 등(2002)이 Frankl(1963)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한 도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48문항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국면(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생의 의미 점수의 범위는 최소 48점에서 최대 19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C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를 통계적·유의수준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실험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2 검정과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3) 죽음교육의 효과는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 4)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 5) 변수의 정규분포는 Kolmogorov - Smirnov

검정과 P-P plo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22.85세이고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22.50세였다. 실험군 14명 중 간호학과가 11명(78.6%), 사회복지학과가 3명(21.4%)이었으며, 대조군도 같은 비율이었다. 학년은 실험군에서 1학년이 1명(7.1%), 2학년이 4명(28.6%), 3학년이 7명(50.0%), 4학년이 2명(14.3%)이었으며, 대조군에서 2학년이 1명(7.1%), 3학년이 7명(50.0%), 4학년이 6명(42.9%)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실험군에서 200만 원 이하가 9명(64.3%), 200만 원 이상이 5명(35.7%)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200만 원 이하가 5명(35.7%), 200만 원 이상이 9명(64.3%)이었다.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경험은 실험군에서 '있다'가 11명(78.6%), '없다'가 3명(21.4%)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있다'가 6명(42.9%), '없다'가 8명(57.1%)이었다. 종교의 유무는 실험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11명(78.6%), 가지고 있지 않다가 3명(21.4%)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9명(64.3%), 가지고 있지 않다가 5명(35.7%)이었다. 죽음교육 참여 경험에서는 실험군에서는 모두 없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있다가 2명(12.8%), 없다가 12명(87.2%)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연령, 학과, 학년 등의 일반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3).

2) 실험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대한 동질성 검정
실험처치 전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실험군은 평균 점수가 57.92점, 대조군은 61.7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생의 의미 점수에

서도 실험군은 평균점수가 151.42점, 대조군은 152.5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생의 의미 4개 국면별 점수에서도 두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특징	구분	실험군(n=14) N(%)	대조군(n=14) N(%)	χ^2 or t	p
연령(세)		22.85(1.79) Mean(SD)	22.50(.75) Mean(SD)	.687	.495
학과	간호학과	11(78.6)	11(78.6)	.000	1.000
	사회복지학과	3(21.4)	3(21.4)		
학년	1학년	1(7.1)	.	4.800	.187
	2학년	4(28.6)	1(7.1)		
	3학년	7(50.0)	7(50.0)		
	4학년	2(14.3)	6(42.9)		
가정 월수입	200만원 이하	9(64.3)	5(35.7)	2.286	.257
	200만원 이상	5(35.7)	9(35.7)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경험	있다	11(78.6)	6(42.9)	3.743	.120
	없다	3(21.4)	8(57.1)		
종교	유	11(78.6)	9(64.3)	.700	.678
	무	3(21.4)	5(43.57)		
죽음교육 참여경험	있다	.	2(12.8)	2.154	.481
	없다	14(100)	12(87.2)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변수	실험군 Mean(SD)	대조군 Mean(SD)	t	p
죽음에 대한 태도	57.92(6.20)	61.78(8.53)	-1.368	.183
생의 의미	34.92(4.76)	152.57(12.55)	-.259	.811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56.92(5.10)	26.71(3.19)	-.372	.328
창조적 가치실현	33.92(4.19)	32.78(3.62)	.772	.447
경험적 가치실현	25.64(2.43)	57.71(6.03)	-.997	.713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	151.42(12.51)	35.35(3.95)	-.241	.798

2. 가설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실험군 14명, 대조군 14명으로 Kolmogorov - Smirnov 검정과 P-P plot 검정을 거쳐 변수의 정규분포를 확인한 후 모수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가설 1: 죽음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점수가 낮을 것이다.

실험 처치 후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실험군의 평균 점수는 47.64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는 60.0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00) 하부요인으로 '죽음에 대한 회피'와 (p=.000) '죽음에 대한 두려움'(p=.001) 영역에서 두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5).

- 2) 가설 2: 죽음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생의 의미에 대한 점수가 높을 것이다.

실험 처치 후 생의 의미 점수에서 실험군의 평균 점수는 161.28점, 대조군의 평균 점수는 149.7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p=.039)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6).

죽음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 4개 국면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창조적 가치 실현'과(p=.043), '경험적 가치실현'은(p=.00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과 '삶과 자기에 대한 만족' 국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죽음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 차이

변수	실험군 Mean(SD)	대조군 Mean(SD)	t	p
죽음에 대한 태도	47.64(5.62)	60.00(8.65)	-4.479	.000
죽음에 대한 회피	24.57(2.50)	30.64(5.06)	-4.022	.000
죽음에 대한 두려움	23.07(4.23)	29.35(4.95)	-3.609	.001

표 6. 죽음교육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의 의미 점수 차이

변수	실험군 Mean (SD)	대조군 Mean (SD)	t	p
생의 의미	161.28(12.23)	149.71(15.66)	2.178	.039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28.07(2.61)	27.50(3.39)	0.499	.622
창조적 가치실현	35.57(3.69)	32.57(3.75)	2.131	.043
경험적 가치실현	60.64(4.58)	53.78(6.12)	3.352	.002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	37.00(4.15)	35.85(4.03)	0.739	.467

Ⅵ. 논 의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수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왜곡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구성한 30시간의 죽음교육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여 건강한 죽음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생의 의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죽음교육이 대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회피'로 구성된 도구로써 점수가 낮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평균평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죽음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실험 전 2.31점에서 1.90점으로, 대조군은 2.47점에서 2.40점으로 변화하였다. 실험군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나타내는 문항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문항에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다'사이에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한 차혜진(2004)의 연구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Fischer(1995)의 연구에서 죽음교육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한 것과 부합되는 결과였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죽음대비교육의 필요성을 연구

한 안춘옥(2001)의 연구에서도 죽음대비 교육에 참여한 경험자는 죽음의 정의, 내세관, 두려움, 죽음을 직면하는 자세, 사후 시신에 대한 자세 등 모든 부분에서 죽음대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 보다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만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죽음교육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삶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Kubler-Ross(1969)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삶만큼 중요한 것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 발달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다. 이러한 배경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남현숙(1999)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죽음준비 교육에 참여한 동기를 57.9%에서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26.7%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죽음교육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이해하고 바라보는 기회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죽음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교육 전·후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는데(Coleman, 1983; Maglio, 1992), 이들 연구에서 지적하는 점은 죽음교육의 방법과 대상자에 따라 죽음교육 이후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Hutchison, 1990). 이러한 결과는 죽음교육이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동시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 만큼 연령별,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죽음교육은 대학생들의 생의 의미 수준을 향상시켰다. 생의 의미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인간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Frankl, 1963) 자기 자신과 삶의 유한성(한계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신과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다(최순옥 등, 2005. 미간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의 의미 측정도구는 4가지 하위요인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창조적 가치실현', '경험적 가치실현' 그리고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되었으며 48점에서 192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생의 의미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군은 실험 전 151.42점에서 실험 후 161.28점으로 향상되었으며($p=.039$), 하위 영역별 점수변화에서는 '창조적 가치실현'과 ($p=.043$) '경험적 가치실현'($p=.002$)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고,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과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 전·후 군내 변화에서 대조군은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과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영역에서 실험 전·후의 변화가 각각 평균 0.79점, 0.30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실험군에서는 각각 평균 2.43점, 2.08점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생의 의미수준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창조적 가치실현'과 '경험적 가치실현' 국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죽음교육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연구에서 대상자수를 더 확보하고 프로그램 내용과 기간을 달리하여 각 국면별 변화정도를 더 확인할 필

요가 있겠다.

'창조적 가치실현'은 창조적인 활동(노동, 취미, 임무에의 열중)을 통하여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직업과 일을 통해 창조적인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경험적 가치실현'은 세상의 경험(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자연, 예술작품)을 통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창조적 가치실현'과 '경험적 가치실현'은 창조적인 활동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과의 경험을 통한 삶의 풍요로움을 다루는 것으로 대학생 시기에 보편적으로 성취해야 할 가치실현 영역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 영역은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신경일 등, 2000)에서도 '자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프로그램을 통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삶과 자신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은 자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도복름 등, 1991) 쉽게 변화되지 않는 지속성을 지닌 변인으로 30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삶과 자신에 대한 만족'은 과거와 현재 삶에 대한 만족으로 아직 20대인 대학생들은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인생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생의 시기별로 죽음교육을 통해 생의 의미 국면별 변화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죽음에 관해 배운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으로(알폰소 데 켄, 2002), 죽음은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삶의 가

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의 인생은 더욱 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이 대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뿐만 아니라 생의 의미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죽음과 고통의 의미, 현대사회와 죽음, 생명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 및 바람직한 삶과 죽음에 관한 강의와 토론은 대학생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 있는 성찰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일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시차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죽음교육은 호스피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 3인과 심리학 교수 1인이 30시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본 대학에서 5일간 1일 6시간씩 강의와 토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일개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죽음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소개하고 연구목적과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실험군 14명, 대조군 14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두 집단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전공학과와 일반적 특성이 동질한 대상으로 짝짓기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대조군이 2004년 1월 26일에서 1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실험군은 2004년 2

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과 동질성 검정은 t-검정으로 실시하였고, 유의판정 수준은 5%로 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죽음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 죽음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생의 의미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죽음교육은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별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죽음교육을 통한 개별적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죽음교육이 대학생들의 생의 의미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접수일자: 2005년 5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8일>

참고문헌

- 강광순. 간호대 학생들의 죽음 및 호스피스에 대한 태도연구.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2000;5(1): 187-201.

- 남현숙. 성인의 죽음에 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99.
- 도복름 외 9인. 최신정신간호학. 서울: 현문사, 1990.
- 부위훈.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서울: 청계, 2002.
- 스즈키 히데코.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야기. 서울: 생활성서, 2002.
- 신경일, 최순옥, 김숙남, 이정지. 여성가장의 생의 의미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00;12(2):127-146.
- 안춘옥. 죽음에의 대비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1.
- 알폰소 데켄. 마지막까지 그대 곁에. 서울: 성서와 함께, 2002.
- 우정길. 죽음교육에 대한 실존주의적 고찰[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영화. 죽음 준비교육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이정지, 신경일, 최순옥, 김숙남. 생의 의미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002;32(7):1039-1048.
- 차혜진. 죽음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죽음불안과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경남: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4.
-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지. 생의 의미 측정도구개발 II. 미간행.
- 최속향.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1995.
- Coleman. The Effect of an Instructional Module on Death and Dying on the Death Anx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ees. Purdue University, 1983.
- Collet LJ, Lester D. Fear of Death and the Fear of Dying. *J Psycho* 1969;72:179-181.
- Feifel H. The Meaning of Death. Princeton: McGraw-Hill, 1959.
- Ferrel BR, Coyle N. Textbook of Palliative Nurs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Fischer M. The Effect of a Multi-method Death Education Curricular on Death Anxiety and Attitude toward Aging. University of Arkansas, 1995.
- Frankl VE.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3. 이봉우(옮김).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서울: 분도출판사, 1980.
- Hutchison TD. Differential Effects upon Death Anxiety of Primary Didactic VS. Primary Experiential Death and Dying Training. The University of Oklahoma, 1990.
- Kubler-Ross E. On Death and Dying. Macmillan, 1969. 이인복(옮김). 임종과 죽음에 대한 의문과 해답. 서울: 홍익제, 1980.
- Maglio DJ. Meta Analysis of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Arizona State University, 1992.
- Nouwen HJM. Our Greatest Gift.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Pub, 1994. 홍석현(옮김). 죽음, 가장 큰 선물. 서울: 홍성사, 1998.

<ABSTRACT>

Effects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Sook-Nam Kim* · Soon-Ock Choi* · Jeong-Ji Lee* · Kyung-Il Shin**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Liberal Education for Humanity,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quasi-experimental and non-synchronized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he study subjects were 28 students at a college in Busan. The experimental group (n=14) participated in a death education program. While the control group (n=14) didn't. The program consisted of lectures and discussions for 6 hours a day over 5 days. The 30-hr course examined the meaning of death, modern society and death, hospice movements and desirable life and death.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s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t-test using SPSS 11.0 WIN Program.

Results: The attitude to death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0$). The meaning in life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39$).

Conclusions: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death education program was effective to enhance the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in college students. Therefore, a continuing death education program can be appli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other subjects.

Key words : Death Education, Attitude for Death, Meaning in Life